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9, pp. 309-317, 2018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8.16.9.309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가 그릿(Grit)에 미치는 영향

정은[1], 정미라[2*]
[1]광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한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 on Grit

Eun Jeong[1], Mi-Ra Jung[2*]
[1]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wangyang Health Sciences University
[2]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yeong Colleg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 그릿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2018년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Y시에 소재하고 있는 H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4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그릿은 긍정심리자본(r=.466, p<.01)과 학업성취도(r=.212, p<.05)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결과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심리자본이었으며 설명력은 21.1%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그릿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자본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주제어 : 긍정심리자본,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 그릿,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fluences on grit in the nursing studen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46 nursing students in the H university located Y city and April 16 2018 to April 20 2018.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Grit was found to be in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result of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indicates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redict 21.1% of gr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to strengthen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ademic Stress, Academic Achievement, Grit, Nursing Student

1. 서론

최근 대학생은 글로벌 경쟁 심화, 경제적 불황, 기술 진보 등 급변하는 시기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진로와 취업 준비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이미 직업적 장래가 준비되었지만 방대한 학업, 임상실습 병행으로 향후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핵심역량의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지속적 노력과 끈기를 요구하게 된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중도 탈락되는 학생의 증가, 신입 간호사들이 육체적, 정신적

*Corresponding Author : MI- Ra Jung(kcc4977@hanmail.net)
Received July 11, 2018 Revised August 27, 2018
Accepted September 20, 2018 Published September 28, 2018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잦은 이직의 문제가 되면서 꾸준한 노력과 열정이 요구되고 있다[1]. 즉 자신이 타고난 재능보다 그 이상의 것에 도전과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의 비인지적인 특징인 그릿이 강조되며 주목되고 있다.

그릿(Grit)은 장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성을 동반한 열정을 의미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성으로 설명된다[2]. 그릿은 국내에서 집념, 투지, 끈기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3,4] 또한 원어 그대로 그릿(Grit)으로 통용된다. 특히 대학생의 그릿은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릿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릿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6]. 또한 그릿은 대학생활에서 목표의식을 통해 학업에 잘 적응하고[4], 장기적인 성취를 위한 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를 지지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그릿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내적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그릿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긍정심리자본의 변인이 제시되고 있다. 긍정심리는 개인이 경험하는 위해요소나 부정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유능하게 기능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시키는 인간의 심리 속성을 말한다[7]. 긍정심리자본은 개개인의 심리적인 강점을 기반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말한다[8]. 또한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활용하여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함으로써 학업이나 직업에서도 높은 성과를 달성한다고 보고되었다[8]. 또한 청소년과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스트레스 등과 같은 변인들과의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으며[9], 임상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따라서 긍정심리자본과 그릿이 연관성이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어[11], 간호대학생의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열정과 노력의 지속이라는 측면의 그릿과 긍정적인 심리상태의 강점인 긍정심리자본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간호대학생은 엄격한 교육과정, 과중한 학습량, 다양한 임상상황에서의 실습수행, 간호사로서 직업관과 가치관 확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12]. 간호대학생은 다른 전공의 대학생들과는 달리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으로 인해 긴장감이 발생하고 특히,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한 일련의 과정 등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14]. 최근에는 성과기반교육과정을 적용한 변화된 교육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더 많은 학업스트레스가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15]. 학업스트레스는 학생들에게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또는 긴장, 근심, 우울, 초조함 같은 심리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학습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16].

학업 환경에서의 성취문제는 가정에서 뿐 아니라 대학생들에서도 학업성취를 높이기 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이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습득한 지식, 기능, 지적능력, 태도, 가치관 등 모든 영역의 교육적 성과로써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단에 의하여 측정된 교과 성적으로 학습결과를 총칭하는 개념을 의미한다[17]. 대학생에서 그릿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5],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릿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릿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으로 최근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와 진로[5,18],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19,20]에 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간호대학생에게 필요한 끈기와 열정에 관한 그릿, 긍정적인 내적인 강화인 긍정심리자본, 과중한 학업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간호대학생들의 그릿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중재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와 그릿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그릿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Y시 소재한 H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연구에 참여하고자 서면 동의한 자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총 146명을 편의 표출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 program을 사용하여 적정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α) .05, 중간 효과크기(f^2) .15, 검증력(1-β) .90, 예측요인 8개로 필요한 표본 수를 구하였을 때, 총 136명이 필요하였다. 탈락율 10%를 고려하여 총 1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에 불성실한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146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적정 수준으로 충족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4월 16일부터 2018년 4월 20일까지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익명성의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의 동의 및 거부 권리를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이었고, 완성한 설문지는 바로 회수용 봉투에 넣은 후 밀봉된 상태로 수거함에 넣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를 마친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긍정심리자본,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 그릿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문항은 '성별, 나이, 학년, 학과 선택동기, 학교생활 만족도, 경제상태, 전공만족도, 희망하는 취업지'로 구성되었다.

2.3.2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은 Luthans[21]이 개발한 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PCQ)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Jung[22]이 번안 및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효능감 6문항, 복원력 6문항, 희망 6문항, 낙관성 6문항의 4개 영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음을 의미한다. Luthans[2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9, Jung[2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이었다.

2.3.3 학업스트레스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schaufeli 등[23]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MBI-SS)척도를 Bae와 Shin[24]이 번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정서소진 5문항, 냉소주의 4문항, 효능감 감소 6문항의 3개 영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부터 '항상 그렇다' 4점이며,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Bae와 Shin[2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이였다.

2.3.4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 2, 3, 4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직전 학기 학점을 자가보고 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1학년 학생들은 중간고사에서 전공기초인 인체구조와 기능 교과목의 중간고사 점수를 자가보고 하여 측정하였다.

2.3.5 그릿

그릿은 Duckworth와 Quinn[25]이 개발하고 Lee와 Kwon[2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노력지속성 8문항, 흥미일관성 4문항의 2개 영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Kwon[2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67-.87,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3이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긍정심리자본,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 그릿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긍정심리자본,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와 그릿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

로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은 여자가 130명(89%), 남자는 16명(11%)이었고, 23세 이상이 41명(28.1%), 20세가 38명(26%), 22세가 38명(26%)으로 나타났다. 1학년과 2학년이 43명(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의 경제상태가 119명(81.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106명(72.6%), 만족이 26명(17.8%), 불만족 14명(9.6%) 순으로 나타났고, 전공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28명(87.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를 보면 높은 취업률이 79명(54.1%), 적성과 취미는 35명(24.0%),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가 30명(20.5%), 고교성적에 따라 2명(1.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희망취업은 대학병원이 66명(45.2%), 중소병원 44명(30.1%), 보건소 26명(17.8%), 산업장 4명(2.7%), 기타 6명(4.1%)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16(11)
	Female	130(89)
Age(yr)	20	38(26)
	21	29(19.9)
	22	38(26)
	≧23	41(28.1)
Academic year	1rd year	43(29.5)
	2rd year	43(29.5)
	3rd year	37(25.3)
	4rd year	23(15.7)
Economic status	High	8(5.5)
	Middle	119(81.5)
	Low	19(13.0)
School life satisfaction	Satisfied	26(17.8)
	Moderate	106(72.6)
	Dissatisfied	14(9.6)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28(87.7)
	Dissatisfied	18(12.3)
Reason of application	High school grade	2(1.4)
	Thinking of aptitude and hobbies	35(24.0)
	Employment after graduation	79(54.1)
	Recommendation of parents and teacher	30(20.5)
Desired career	Tertiary hospital	66(45.2)
	General hospital	44(30.1)
	Health center	26(17.9)
	Industry nurses	4(2.7)
	etc.	6(4.1)

3.2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 그릿의 정도

긍정심리자본의 평균점수는 3.42±.43점(범위:1-5점)으로 하위영역별로 희망 3.44±.52점, 자기효능감 3.43±.54점, 복원력 3.42±.52점, 낙관성 3.41±.57점 순이었다. 학업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2.30±.52점(범위:1-4점)으로 하위영역별로 정서소진 2.56±.78점, 효능감 감소 2.31±.65점, 냉소주의 1.94±.82점 순이었다. 학업성취도의 평균점수는 2.99±.49점(범위:2-4.5점)으로 평균평점 3.0-3.9점이 110명(75.3%), 2.0-2.9점이 19명(13.0%), 4.0점 이상이 17명(11.6%)순으로 나타났다. 그릿의 평균점수는 3.18±.41점(범위:1-5점)으로 하위영역별로 노력지속성 3.20±.41점, 흥미일관성 3.15±.5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Table 2. Degre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ademic stress, academic achievement, grit

(N=146)

Variables	n(%)	Range	M±S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5	3.42±.43
Self-efficacy			3.43±.54
Hope			3.44±.52
Resilience			3.42±.52
Optimism			3.41±.57
Academic stress		1-4	2.30±.52
Exhaustion			2.56±.78
Cynicism			1.94±.82
Professional efficacy			2.31±.65
Academic achievement		2-4.5	2.99±.49
Grade point average 2.0-2.9	19(13.0)		
Grade point average 3.0-3.9	110(75.3)		
Grade point average ≧4.0	17(11.6)		
Grit		1-5	3.18±.41
Persistence of effort			3.20±.41
Consistency of interests			3.15±.5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그릿은 전공만족도($F=3.15$, $p<.001$), 희망취업($F=2.64$, $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고).

Table 3. Differences of grit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6)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F(p)
Gender	Male	3.22±.44	0.46 (.645)
	Female	3.17±.41	
Age(yr)	20	3.07±.37	1.274 (.286)
	21	3.25±.44	
	22	3.23±.45	
	≧23	3.19±.39	
Academic year	1rd year	3.10±.38	0.75 (.524)
	2rd year	3.23±.39	
	3rd year	3.21±.46	
	4rd year	3.17±.42	
Economic status	High	3.29±.69	0.65 (.521)
	Middle	3.18±.38	
	Low	3.10±.45	
School life satisfaction	Satisfied	3.27±.33	2.69 (.071)
	Moderate	3.18±.42	
	Dissatisfied	2.96±.43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3.21±.42	3.15 (.004)
	Dissatisfied	2.98±.26	
Reason of application	High school grade	2.95±.76	1.88 (.135)
	Thinking of aptitude and hobbies	3.32±.39	
	Employment after graduation	3.13±.41	
	Recommendation of parents and teacher	3.16±.41	
Desired career	Tertiary hospital	3.24±.43	2.64 (.036)
	General hospital	3.02±.39	
	Health center	3.29±.37	
	Industry nurses	3.20±.17	
	etc.	3.15±.42	

*p<.05, **p<.01, ***p<.001

3.4 긍정심리자본,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 그릿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 그릿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릿은 긍정심리자본(r=.466, p<.01), 학업성취도(r=.212, p<.05)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은 학업스트레스(r=-.290, p<.01), 학업성취도(r=.221, p<.01)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고).

Table 4. Correlations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ademic stress, academic achievement, grit (N=146)

Variabl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ademic stress	Academic achievement	Grit
	r(p)	r(p)	r(p)	r(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			
Academic stress	-.290 (<.01)**	1		
Academic achievement	.221 (.007)**	-.026 (.752)	1	
Grit	.466 (<.01)**	-.049 (.559)	.212 (.010)*	1

*p<.05, **p<.01

3.4 그릿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과 그릿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인 전공만족도, 희망취업, 긍정심리자본, 학업성취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참고). 다중공선성 확인 결과 공차한계는 0.85-0.97로 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으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잔차 분석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1.87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었다. 분석결과 그릿에 긍정심리자본(β=-.48, p<.001)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 설명력은 21.1%(F=39.84, p<.00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Grit (N=146)

Variables	B	SE	β	t(p)
(Constant)	1.667	.24		6.88 (<.00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442	.07	.46	6.31 (<.001)
Durbin-Waston =1.87, F=39.84, p<.001, Adjusted R^2= .21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와 그릿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그릿의 정도는 평균

점수 3.18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의 정도를 측정한 Lee와 Park[19]의 평균점수 3.31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더라도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지하며 노력과 끈기를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2],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들은 아직 전공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1학년과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는 2학년을 포함하여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선행연구[19]의 결과보다 그릿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릿의 하위영역인 노력지속성은 평균점수 3.20점, 흥미일관성은 3.15점으로 선행연구 Lee와 Park[19]의 연구에서 흥미일관성은 3.27점, 노력지속성은 3.36점, Park, Woo와 Kim[20]의 연구에서 흥미일관성은 2.75점, 노력지속성은 3.27점으로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노력지속성 보다 흥미일관성이 낮은 점수를 보여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시험이나 과제 등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스스로 간호학이라는 학문에 흥미를 느껴서 하는 것 보다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끈기와 노력으로 버티고 이를 잘해내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20]. 또한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학과 지원동기를 보면 적성과 취미에 맞아서 간호학과를 지원한 경우는 35명(24.0%)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취업률 79명(54.1%)과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가 30명(20.5%)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의 차이를 보면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 적성과 취미에 맞아서 간호학과를 지원한 경우와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그릿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본인의 적성과 취미에 맞아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에 과중한 학업으로 인해 학업을 그만두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선배와의 그룹모임을 통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조언을 받도록 하며 학과 내에서는 간호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학업을 지속하여 국가고시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의 정도는 평균점수 3.42점으로 나타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Kim[27]은 평균점수 3.53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에서 희망이 3.44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은 주어진 환경에서 긍정적인 심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8]으로 희망은 목표가 성취될 수 있고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것을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목표달성 경로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 상태이다[28].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라는 장기적인 목표가 성취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 희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에게 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긍정심리자본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의 정도는 평균점수 2.30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한 Choi와 Byun[29]의 평균점수 2.33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과 Yoo[30]의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는 2.22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과중한 학업부담과 학기 중에 강의와 실습을 함께 이수해야 하므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학업에 대한 압박감의 강도가 타 학과 대학생들보다 커서[31,32]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Jung과 Jeong[9]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높으면 학업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결과에서도 학업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정서인 긍정심리자본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내적 특성을 이용한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하는 중재개발이 필요하며 가족과 학과 차원에서의 정서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대부분의 대학생 학업성취도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평점평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직전학기 학점을 자가보고 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균학점은 4.5만점에 2.99점이었고, 평균학점 3.0-3.9점이 110명(75.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Joo와 Choi[33]의 학업성취도는 평균학점 3.62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간호교육인증평가와 관련하여 간호대학생들의 학점 보다는 간호교육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학업성취도 대신 간호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 성과를 활용하는 방법[34]이 필요하며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그릿은 학업성취도와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18]와 Han[5]의 연구결과에서도 그릿이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지지하였다. 뛰어난 성취를 달성한 사람들은 그릿이 높고 이러한 그릿은 성공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18] 대학생들에게 그릿은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필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학업성취를 달성하기 위해 그릿을 높이는 방법으로 관심, 연습, 목적, 희망을 설명하였는데 관심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것, 연습은 어제보다 잘하기 위해 매일 단련하는 끈기, 목적은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는 것, 희망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끈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5,35].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갈등상황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흥미를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릿을 높이기 위한 관심, 연습, 목적, 희망을 중재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긍정심리자본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긍정심리자본과의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교사를 대상으로 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인 자기효능감과 복원력과의 영향을 보면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능감과 복원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36]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과 복원력이 그릿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그릿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과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결과이다. 긍정심리자본은 희망, 자기효능감, 복원력, 낙관성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원하는 목표를 위해 인내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 도전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기효능감, 문제나 역경과 같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거나 이를 뛰어넘는 복원력,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한 낙관성으로 구성된다[37]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자본이 중요한 요소로서 학생과 교수자가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7]. 따라서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간호대학생들에게 그릿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적인 긍정적인 심리상태가 중요하므로 학과차원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가정에서는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심리자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그릿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자본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에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고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의 변수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 그릿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그릿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3.42±.43점, 학업스트레스는 2.30±.52점, 학업성취도의 평균점수는 2.99±.49점, 그릿의 평균점수는 3.18±.41점으로 나타났다. 그릿은 긍정심리자본과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심리자본으로 이들의 설명력은 21.1%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그릿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심리자본을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지방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을 포함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에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고, 또한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그릿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자본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S. K. Lee, S. N. Park & S. H. Jeong. (2012). Nursing co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fields of nursing practice for graduate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8(4),* 460-473. http://dx.doi.org/10.11111/jkana.2012.18.4.460

[2]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 D. R. Kelly.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1087-1101.

[3] J. I. Jin & N. C. Kim. (2017). Grit, academic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3(2),* 175-183.

[4] H. S. Ha, H. J. Lim & M. H. Hwang. (2017). The role of grit, goal perception, conscientiousness and resilience in academic adjust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8(1),* 371-388.

[5] S. C. Han.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the university students[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6] S. N. Slick & C. S. Lee. (2014). The relative levels of grit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otential dropping-out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8),* 61-66.

[7] M. E. Seligman & P. M. Csikszentmihalyi. (2000).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5(1),* 5.

[8] F. Luthans. (2002).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Developing and managing psychological strengths. *Th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6(1),* 57-75.

[9] M. R. Jung & E. Jeong. (2017).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stress in adolesc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7(12),* 399-407. http://doi.org/10.5392/JKCA.2017.17.12.399

[10] M. R. Jung & E. Jeong. (2018). Effects of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clinical nurses on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2),* 277-285. https://doi.org/10.14400/JDC.2018.16.2.277

[11] H. S. Choi & S. J. Yang. (2017). Mediation efects by git and psitive pychology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8,* 346-346.

[12] M. H. Jeong & M. A. Shin.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170-177.

[13] M. S. Chung. (2009). The relations of self-esteem, practical performance, and practical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8(1),* 60-68.

[14] H. S. Park, Y. J. Bae & S. Y. Jung. (2002).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1(4),* 621-631.

[15] B. Y. Park & O. S. Shin. (2016).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in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1),* 811-830. http://dx.doi.org/10.22251/jlcci.2016.16.11.811

[16] B. G. Baek & S. M. Park.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cademic stres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6(2),* 563-585.

[17] A. K. Yang & H. J. Cho. (2010). An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self-regulated learning upon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8(3),* 61-82.

[18] S. R. Lee. (2015). *Effects of grit, deliberate practice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on academic achievement[dissertation].* Yonsei National University, Seoul.

[19] S. J. Lee & J. Y. Park. (2018).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2),* 269-276. http://doi.org/10.14400/JDC.2018.16.2.269

[20] J. Y. Park, C. H. Woo & J. E. Kim. (2018).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the grit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165-175. http://doi.org/10.14400/JDC.2018.16.1.165

[21] F. Luthans & C. M. Youssef-Morgan. (2007).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in the workplace: The impact of hope, optimism, and resiliency. *Journal of Management, 33(5),* 774-800.

[22] E. Y. Jung. (2013).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career barriers and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girls[master's thesis].* Myongji National University, Seoul.

[23] W. B. Schaufeli, I. M. Martinez, A. M. Pinto, M. Salanova & A. B. Bakker.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464-481.

[24] B. H. Bae & H. C. Shin. (2009). The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n academic stress: The longitudinal analysis of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1(3).*

[25] A. L. Duckworth & P. D. Quinn.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 166-174.

[26] J. L. Lee & D. H. Kwon. (2016).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ocus of control, mindset,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1),* 245-264.

[27] Y. M. Kim. (2016).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twee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7),* 112-122.

[28] C. R. Snyder & S. J. Lopez. (2002).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9] S. H. Choi & E. K. Byun. (2016).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stress for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4),* 2303-2313.

[30] D. W. Shin & G. S. Yoo. (2012). Effects of the perceptions of parents' expectations for the future careers of children on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7(1),* 3-22.

[31] Y. K. Kwang. (2013).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5),* 2178-2186.
http://dx.doi.org/10.5762/KAIS.2013.14.5.2178

[32] N. H. Cha. (2013). Learning ability and stress by character typ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2),* 6257-6264.

[33] G. Y. Joo & Y. S. Choi. (2015).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300-7309.
http://doi.org/10.5762/KAIS.2015.16.11.7300

[34] S. K. Chung. (2014). Effects of nursing student's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2),* 7160-7169.
http://doi.org/10.5762/KAIS.2014.15.12.7160

[35] A. Duckworth.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 perseverance.* M. J. Kim, translator. Seoul: business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2016)

[36] M. R. Lee, H. W. Lee & J. H. Tak.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fficacy and gri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 491-512.

[37] F. Luthans, C. M. Yousse-Morganf & B. J. Avolio. (2015). *Psychological capital and beyo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정 은(Jeong, Eun) [정회원]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16년 8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광양보건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보역량, 교수학습
- E-Mail : jwon8045@hanmail.net

정 미 라(Jung, Mi Ra) [정회원]

- 2013년 8월 : 우석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16년 8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한영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ICT, 웰니스
- E-Mail : kcc4977@hanmail.net